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9/30~10/6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무비스님의 반야심경	무비	조계종출판사
2	THE DIAMOND SUTRA	무비,조현춘 공역	운주사
3	고광스님의 임제록 도장 깨기	고광	불광출판사
4	마음으로 그리는 극락세계	무비 감수	한영출판사
5	붓다의 근본 가르침	이철현	아름원
6	신편치문	조계종교육원	조계종출판사
7	은둔	조현	불광출판사
8	조론	조병활 역주	장경각
9	DIARY OF A KOREAN ZEN MONK	VEN.JIHEO/지허	불광출판사
10	궁금하세요? 우리 절집	고연희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 디피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2	아사나 쁘라나야마 무드라 반다	사라스와띠	한국요가출판사
3	화, 마음의 불꽃을 식히는 지혜	틱낫한/허우서,허주형	운주사
4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	헬렌니어링/이석태	보리출판사
5	부처님의 마지막 발자취	각묵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6	무문관에서 꽃이 되다	탄하삼성/최만희 편저	운주사
7	티벳 불교에 대한 짧고 깊은 안내	매튜 캡스타인	운주사
8	빼알리 경전과 함께하는 인도 불교 성지순례 가이드	무념 엮음	옛길
9	고광 스님의 임제록 도장 깨기	고광	불광출판사
10	붓다의 가르침	월폴라 라훌라 (Walpola Rahula)	맑은소리맑은나라

기록 밖의 수행자를 만나다



은둔
조현 지음
불광출판사
2만5000원

20년 만의 개정증보판
은둔 수행자 41명의 삶
"삶으로 빛을 남긴 이들"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깨달음은 한순간의 체험으로 찾아오는 것일까, 아니면 삶에서 지속되는 현상일까. 오랜 수행 끝에 문득 찾아온 깨달음의 순간보다 중요한 것은 어쩌면 그 후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일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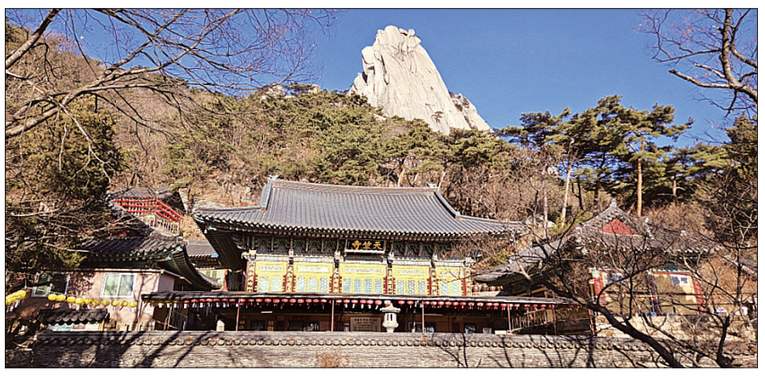
20년 만에 개정증보판으로 새롭게 선보이는 〈은둔〉은 "깨달은 사람은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다. 초판에 고우·도천·서암·연관·오현·청화·연기 스님과 박한영·백학명·삼성·취봉 스님 등 11명을 더해 41명의 삶을 담았다.

24년간 종교전문기자로 활동한 저자는 전국의 산사와 수행처를 찾아다니며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고승과 수행자들을 직접 만나고 교유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사람이 어떤 유년을 지나 출가했고, 왜 수행에 목숨을 걸었으며, 긴 정진 끝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지를 기록했다.

책에 등장하는 수행자들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성인'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때로는 괴팍하고 파격적이며 세상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모습도 보인다. 그러나 저자는 겉으로 드러난 기행이 아니라, 오랜 수행이 한 사람의 마음과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결국 사람과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게 했는지를 살핀다.

지월 스님은 자신을 때린 사람의 손부터 걱정했다. 수월 스님은 가진 것이 없어도 남에게 줄 것은 한량없이 많다고 여겼다. 청화 스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중생이 아니라 부처라며 삼배를 올렸다. 이들에게 수행은 자신만의 깨달음에 머무는 일이 아니라, 타인을 대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일이었다.

책에 등장하는 수행자들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오히려 출발점에는 가난과 상실, 전쟁과 죽음 같은 깊은 고통이 놓여 있었다. 전강 스님은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젖먹이 동생을 업은 채 젖동냥을 다녔다. 우화 스님은 어머니를 잃은 뒤 집을 나왔고, 오현 스님은 여섯 살에 절에 맡겨졌다. 보월 스님은 걸인으로 떠돌다 출가했다.



〈은둔〉은 고통을 자유로 바꾼 41명의 숨은 수행자들을 소개한다. 사진은 무문관이 있는 서울 도봉산 천축사. 사진 출처=천축사 홈페이지

그들에게 수행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도피처가 아니라 가장 깊은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일이었다. 현기 스님은 지리산 상무주암에서 40년 넘게 홀로 화두를 붙들었다. 보문 스님은 90일 동안 잠을 자지 않는 용맹정진에 나섰고, 제선 스님은 6년 동안 문을 걸어 잠근 무문관에서 수행했다.

목숨을 걸고 수행한 이들은 오히려 점점 가벼워졌다. 가진 것을 내려놓고 권위에서 벗어났으며, 자신의 아픔보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먼저 살폈다. 상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상처가 더 이상 삶을 끌고 다니지 못하게 된 것이다.

저자는 자신이 찾아 헤맨 수행자들을 '빈자의 등'에 비유한다. 화려한 이름 대신 삶으로 빛을 남긴 이들. 이들이 밝힌 작은 등불은 쉽게 꺼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수행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과정이 아니라, 고통에 끌려가지 않고 한 사람을 더 따뜻하게 대하게 되는 과정임을 마흔한 사람의 삶을 통해 보여준다.

백제금동대향로에 새겨진 불교



일상이 고고학, 나 혼자 백제금동대향로
황윤 지음
책읽는고양이
2만2000원

유 · 불 · 도교 어우러진 유산
수미산 세계관 근거 향로 해석

국립부여박물관에 소장된 국보 백제금동대향로는 1993년, 부여 능산리 고분의 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전 발굴조사 중 출토됐다. 발굴 직후엔 향로의 조성 형식을 두고 도교의 영향을 받은 유물로 추정했으나, 출토된 장소가 사찰 터로 밝혀진 후로는 관련 연구도 이어져 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성왕 시절 왕권 강화를 위해 적극 도입한 유교와의 관련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저자는 선행 연구를 살핀 후 '불교세계관을 중심으로 도교, 유교가 결합한 형태'로 해석한다. 불교의 수미산 세계관에 근거해, 불교의 백과사전격인 〈경률이상〉 속 금시조와 용 이야기를 소개함으로써 향로 속 불교의 비중을 일목요연하게 풀어준다.

특히 저자가 주목한 것은 금시조다. 향로 맨 위 여의주를 품고 있는 금시조와, 가장 아래 위치한 용이 팔 하나를 하늘로 뻗고 있는 모습이 〈경률이상〉 속 금시조 정음의 최후를 묘사했다는 것이다. 이어 정음의 심장, 즉 여의주를 얻는 존재는 전륜성왕이므로 향로의 주인이 곧 전륜성왕이자 백제왕 중 한 명이라 추측한다.

국립부여박물관에서 백제금동대향로를 꼼꼼히 살펴본 후 향로가 출토된 능산리사지를 거쳐 백제 왕궁터를 살펴보는 순서로 구성돼 있다. 저자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향로에 새겨진 백제인들의 사상을 만날 수 있다.

여수령 기자

통일 이후 신라 역사와 전승



삼국유사 기이2편
일연 지음
신대현 번역 · 해설
혜안
2만4000원

문무왕에서 경순왕까지
해설과 사진으로 만나다

신대현 능인대학원대학교 불교학과 교수가 〈삼국유사〉를 번역·해설하는 시리즈의 세 번째 책이다. 〈흥법·탑상편〉에서 우리 불교사와 불교미술에 대해 들려준 데 이어, 〈기이1편〉에서는 단군왕검을 시작으로 고대국가의 시조들과 신화적 인물들을 소개했다.

〈기이2편〉은 문무왕 시기부터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를 담았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뒤 맞이한 새로운 위기, 왕권의 변화, 불교 신앙과 민간 전승, 신라 말기의 혼란과 고려로의 이행이 차례로 펼쳐진다.

책의 전반부에서는 나당전쟁, 사천왕사와 문두루 비법, 문무왕의 동해 용 전승, 감은사와 이견대 설화 등을 통해 통일 이후 신라가 맞이한 국가적 위기와 그 위기를 기억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중간부에서는 정치와 불교, 향가와 차 문화, 산신신앙와 왕실 의례가 어우러진 신라 문화의 결을 살필 수 있다. 후반부는 신라 말기의 정치적 동요와 왕조의 마지막 장면이 차례로 드러난다.

각 장에서 원문과 번역을 제시하고 그 전개와 맥락이 드러나도록 해설을 덧붙였다. 또 풍부한 유적과 유물 이미지를 담아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저자는 앞으로 〈의해〉 〈신주〉 〈감통〉 〈피은〉 〈효선〉의 다섯 편목을 번역·해설해 전편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여수령 기자

108편 시로 기념한 '불교와 문학' 100호

현대불교문인협회 기관지
"불교문학, 삶의 답 제시"



현대불교문인협회(회장 수완 스님)가 펴내는 계간 〈불교와 문학〉이 100호를 맞았다.

1995년 창간호를 시작으로 〈불교문예〉 〈마하야나〉 등의 제호를 거쳐 〈불교와 문학〉으로 발간되고 있다.

2026년 가을호인 100호에는 시인 100명의 불교 제재 시 108편이 실렸다. 로담·범상·법산·법현·수완·원담·일대·지우·혜륜·혜조 스님을 비롯한 협회 회원들과 신달자, 도종환, 홍사성, 문태준 시인 등 외부 필진의 시를 만날 수 있다.

신인상 수상자인 김명자, 최순미 시인의 작품과 수상 소감, 심사평도 게재됐다.

공광규 발행인은 권두언에서 "108명의 현역 시인이 각자의 일상과 사유 속에서 건져 올린 시편들이 108개의 염주 알처럼 단단하고 아름답게 연결돼 하나의 커다란 서장의 고리를 만들었다"며 "기술적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정신적 빈곤을 겪는 야만의 시대에 불교문학은 삶의 근원적인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

